



오인회 소식

2017년 9월 (제72호)

권두언 (卷頭言)

꽃

꽃의 붉음이 보이네
그런데 어느날 꽃과 함께 공간이 보이네
그 꽃이 붉을 수 있게 공간이 있었네

우리 마음에 기쁨 하나, 슬픔 둘,
아, 알고보니 그것이 있도록 없음이
있었네

이토록 신비한 것을
곁에 두고도 까맣게 몰랐네

이 말 하나도
지금 이 순간
꽃처럼 피었네

- 惺智 -

* 홀로스 공동체 후원 현황 *

홀로스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홀로스 운영 후원 내역

○ 일반후원

- 8월 25일 해연 10만원/ 8월 25일 장경옥 10만원/ 9월 10일 선호 1만원/ 9월 11일 류창형 3만원

● 공동체학교 후원 내역

○ 일반후원 (기보 100만원/ 연주 60만원, 바람 300만원, 지원 100만원, 자명 80만원)

○ 월정기후원 (매월 20만원 2년간/ 별칭 뒤에 숫자는 월 후원 횟수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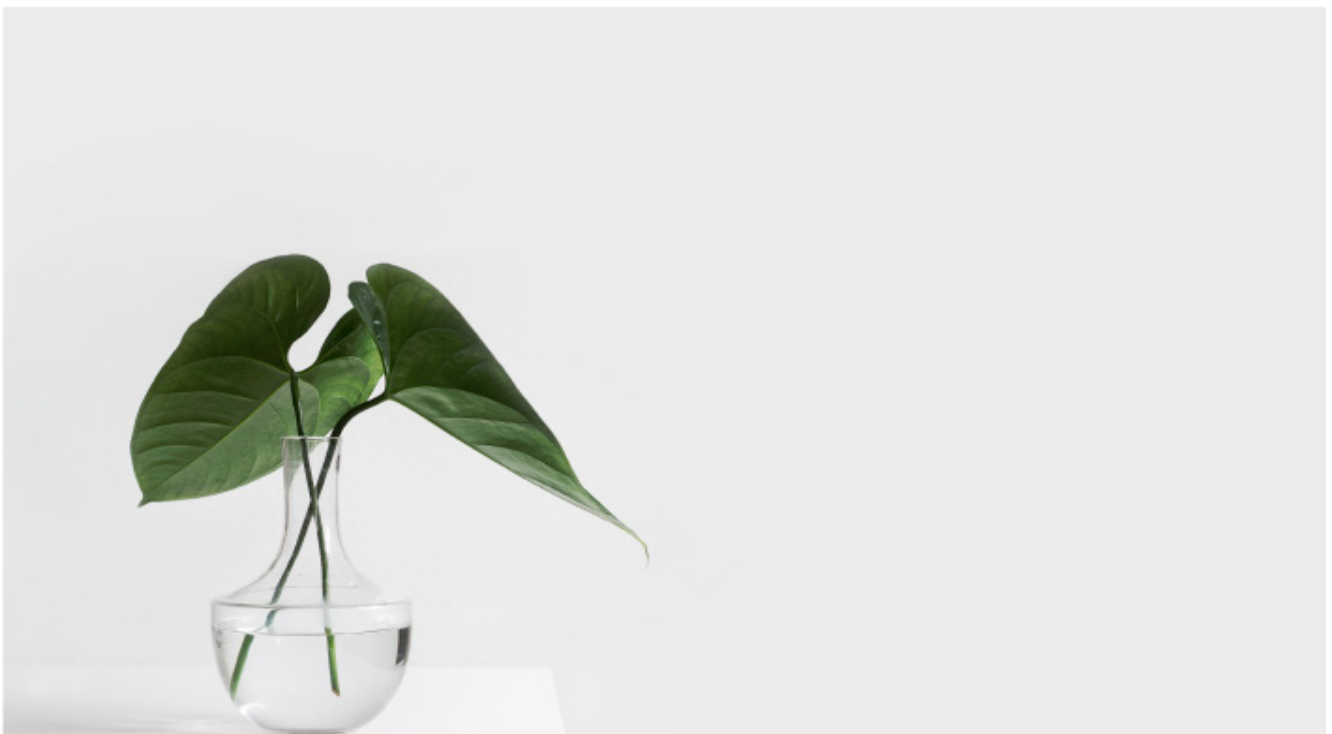
- 일반 (익명1/24, 익명2/24, 능주10, 솔내음8, 무유9, 고을9, 서원8, 여몽9, 원님9, 기보9, 씨이8, 허유7, 우심7, 거위7)
- 기타 (가온10, 구당9, 자현8)

<공동체학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 안내

번뇌즉보리 총서 2권이 준비 중입니다. (대승기신론상 출판 완료, 下 출판비 : 450만원/ 현재 후원액 2,669,951원 (上출판 이월금 215,451원, 능주40만원, 우현 254,500원, 기보 100만원, 금산스님 50만원, 나무 30만원)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계좌> 농협 351-0680-1315-13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오인회 인터뷰 - 거위(3)

개별적 자아는 허상이다

거위님은 의사 일을 하며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늘 진리란 무엇인가 궁금해 하며 지내오던 중 마하라지의 책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었고 연이어 찾아온 월인 선생님의 두 권의 책을 인연으로 두 번의 깨어있기 프로그램을 통해 미내사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프로그램, 그리고 이어진 월인 선생님의 화상 강의들을 통해 점차로 발생하는 안 밖의 변화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호에서 이어서)

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믿음 때문에 감정도 생기는 그런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거나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경우,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죠. 특히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런 믿음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타인과의 대립과 갈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환경을 설정해주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말썽이 있었다, 와 같은 경우가 있으셨나요?

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믿음 자체가 허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정말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믿음이 허구이듯 저 사람의 믿음도 허구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그걸 강하게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부딪쳤어요. 제 믿음을 굳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허: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 같은 것을 깨어있기 강좌를 통해서 또는 선생님의 주역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명확해진 것이 있나요?

거: 그 부분은 되게 미묘해요. 저는 그 신념이라는 것을 커다란 믿음 외에 미묘한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관성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제가 책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환자를 보는 낮시간에도 인터넷으로 이북을 쳐놓고 있으면서 시간날 때마다 봐요. 그런데 환자가 예고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책을 보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 빠져들었는데 환자가 왔다고 들어오면 기분이 살짝

나빠지거든요. 저는 그것도 신념이라고 봐요. 제가 그것에 무게 중심을 둔거죠. 그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기분이 살짝 나빠진 거죠.

이제는 미묘하지만 이런 것들도 캐치가 돼요. 예전엔 무의식적으로 기분 나빠하며 넘어갔는데 지금은 캐치가 돼서 바로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감정적으로 묶이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허: 정리하자면 ‘내가 진료실에서 재미있는 책을 보고 있다.’ 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즉각 알아차리고, 이것이 현상적이고 일시적이란 것까지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쁨이 잠깐 일어났다 사라진 거구요.

거: 말을 하자면 그런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느낌은 이런 표현이 더 가까워요.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몰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몰입과 방향에 다른 패턴이 치고 들어 온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불협화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서 감지와 생각을 좀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거: 구별이 되지 않아요?

허: 그렇다면 좀 전의 예에서 감지는 어떤 거고, 생각은 무엇이다, 라고 오인회 독자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해준다면요?

거: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서로 결이 맞지 않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상황에서 결이 맞지 않는 그 찰나처럼 미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이 느낌이고, 감지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말로 구체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감정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이유들, 구구절절한 변명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이래서 기분 나빠졌어, 저 환자 때문이야' 그런 것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환자'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죠. 단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 뿐인 거죠.

허: 누구의 책임이나 잘못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 그냥 상황에 따라 일어난 것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거: 네, 자연스레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것을 말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깨어있기 심화 프로그램에 참석하러 함양에 갔을 때, 차를 타고 막 도착을 했는데 선생님이 연못 옆에 웃으면서 서 계셨어요. 근데 너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저로서는 최대한 공손하게 표현하려고 두 손을 모으고 가서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잘 안 해요. 계속 들어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도 빼먹기 싫었어요. 저번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이 그리 즐겁냐고. 그냥 웃음이 나요. 말씀하시는 것이 통쾌하고, 그리고 답답해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이 바닥에서 이런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안내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허: 선생님의 느낌을 잡아내는 것이 재미있다는 건가요?

거: 강의하시면서 가끔 답답해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어떨 땐 기발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날 첫 만남에서 제가 너무나 열심히 들었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시원했구요. 그냥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허: 나와 대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 나와 대상은 그냥 분별일 뿐이죠. 사실은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니죠. 통으로 전체로써 하나죠. 그냥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냥 자연 현상이랑 똑같아요.

허: 자연 현상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거: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섞여서 화학반응을 보이듯이 그런 것과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따로 있고 대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 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그것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 실상 일어나는 것은 통으로 하나죠. 하나의 현상에서 좌뇌 적인 생각으로는 나와 대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상의 세계에서는 나눌 수 없는 하나죠.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죠.

허: 아까 진료를 보실 때 책을 보다가 환자가 들어올 때 어떤 언짢은 감정 같은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결국은 나의 분별이 작용을 해서 '나는 의사고 환자가 왔다' 이런 분별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거: 아뇨 의사, 환자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이 맞지 않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기분상함이 살짝 느껴진다는 거죠.

허: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거위님은 의사고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 환자가 왔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분별의 기초가 아닌가요?

거: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무릎이 아파서 왔다 하면 이것저것 물어봐서 분별해내는 게 것이 직업이니까 분별을 사용안 할 수가 없죠.

허: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하나의 분별 아닌가요?

거: 분별이죠.

허: 그것이 왜 사실이 아니고 분별인가요?

거: 그것은 제가 실제 어느 레벨에 동일시를 하느냐에 따라 사실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거라고 봐요. 제가 동일시를 어느 레벨에 하고 있느냐, 어느 레벨에 제가 의도적으로 동일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결정되는 거죠.

허: 그 말씀은 동일시를 어딘가에 많이 할수록 사실에 가까워진다는 건가요?

거: 동일시가 커지면 현실감이 굉장히 커지죠.

허: 결국, 내가 의사다. 다른 환자가 왔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분별이라는 건가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분별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도 점점 분별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허: 환자가 없으면 의사라고도 할 수 없겠네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니까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사와 환자라는 게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구요.

거: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데 저는 사실 의사, 환자 뿐만 아니라, 병도 실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허구라고 생각해요. 그 허구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병이란 물질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암 같은 것은 확연히 보이잖아요. 암 덩어리가요. 그것을 허구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잘못 해요. 그런데 정신병을 예로 들어 보면 정신 분열병이나 우울증 같은 것도 다 허구라고 보는 거죠. 세계 정신과 학회에서는 병의 진단 기준들을 매년 바꿔요. 그것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신 분열병이었던 환자가 올해는 정신 분열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단 자체가 허구에요.

허: 그런데 큰 틀은 변하지 않지 않나요,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크게 봐서는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일종의 스펙트럼인데 그 스펙트럼에서 그냥 범주를 정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정신분열증, 여기서부터 여기는 정상' 으로요.

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긴 하네요. 시험 볼 때 커트라인을 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거: 네. 결국 세계가 돌아가려면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계라는 것이 전부 에고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허: 세계가 돌아가는 것과 정신병 경계를 정하는 것과의 보편적인 관계는 뭐죠?

거: 범주가 정해져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가 돌아가게끔 되어있다는 거죠. 범주가 정해지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허: 정신병 진단을 내리고 '당신은 정신분열증 환자다.' 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수용소에 가두기 위해선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거: 네, 어떤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가 돌아가려면 어떤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것이 필연적인 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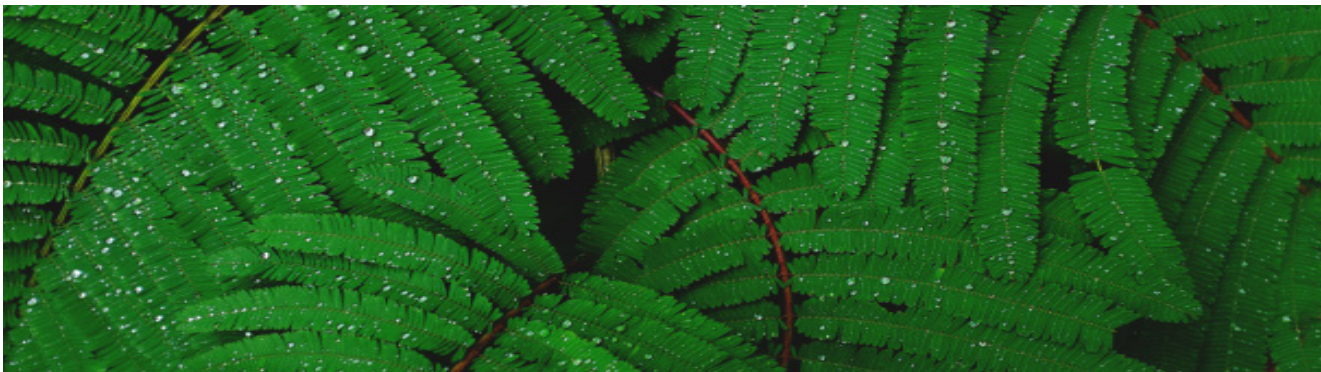
요. 그것이 음모이론처럼 의사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죠. 의사들은 학문적인 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학회에선 계속 싸워요. '내 기준이 맞네, 당신 기준이 맞네' 라고 해가면서요.

허: 결국 크게 봐서 그것도 하나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다 분별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 다 분별이죠. 모든 것이 분별일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그 분별로 인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중요한 조건이 되지만, 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이한테 과잉행동 진단을 내리면 그것은 일종의 선고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도 해마다 바뀔뿐더러 사실 그 기준이 점점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엔 아니었는데 올해 검사해보면 그렇다고 진단을 받는 거죠. 점점 많은 숫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수다스럽고 활발한 애인데 '너는 과잉행동이야' 라고 딱 이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부터 그 아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신념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붙이는 순간 주위의 모든 사람은 그 아이를 과잉행동이란 낙인을 가지고 봐요. 그러면 아이와 사람들은 그 개념에 속박 되는 거죠. 물론 애가 굉장히 강인한 에고를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병원은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자주 안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호에 계속)

대승기신론(55) - 2013년 6월 4일 강의



진여(眞如)와 무명(無明)이 서로를 물들입니다. 진여는 무명을 물들여서 맑게 하고, 무명은 진여를 물들여 어둡게 하죠. 진여라는 것은 절대적인 본질인데 어떻게 물들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지만, 생멸상(生滅相) 속의 진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진리, 본질을 뜻하는 진여를 대승기신론에서는 둘로 나누었죠. 닿을 수도 없고, 건드릴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절대적인 진여는 진여문(眞如門)에 속하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진여의 모습인 진여법(眞如法)은 생멸문(生滅門)에 속합니다. 법(法)이라는 단어에는 부처님의 설법(說法),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법, 그리고 우주적인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여법의 '법'은 이 중에서 현상을 가리키는 의미이므로, 현상으로 드러난 진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난 진리는 물들이기도 하고, 물들기도 하기 때문에 혼숙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여법(眞如法)에 의해 무명(無明)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여법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진리이며, 우주적 메커니즘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현상 중에서 어떤 법칙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만큼 근본 원리가 되는 현상을 진여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현상은 카오스입니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도 우주적인 진리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리적인 법칙과 우주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의식적인 원리도 진여법입니다. 현상으로 드러난 의식의 메커니즘일 뿐 인거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주 자체가 아니라 우주의 메커니즘이듯, 진리 또한 현상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우주적 메커니즘’과 ‘의식의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결국 그것은 관찰자와 관찰대상 사이의 관계이지요. 물리학은 결국 관찰기구인 측정기와 측정 대상 사이의 관계입니다. 측정기가 정밀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하늘의 별을 몇 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허블 망원경으로 훨씬 많은 별을 관찰합니다. 밤하늘의 별은 사실 몇 십 광년, 몇 백 광년 떨어진 별들이고, 이미 죽어 사라진 별을 이제 보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이 정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란, 사실 우리의 감각기가 찾아내고 측정한 감각적인 사실을 기본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자체’라고 할 수 없죠. 우리의 감각기가 바뀐다면 우리가 감각하는 우주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힐러는 ‘존재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물은 실제라기보다는 감각기가 측정해 낸 사물 자체의 그림자인거죠. 이처럼 감각적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실제 존재한다고 믿고, 분별하고, 그것을 토대로 뭔가를 만들어 내면서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의 물리학자들은 뉴턴 시대와 양자역학 시대의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뉴턴 시대에는 우리가 보는 사물과 우주, 그리고 모든 법칙이 실제라고 여겼으나, 양자역학 시대에는 수학적 공식이나 메커니즘을 통한 우주의 표현 자체가 환상임을 안다는 거죠. 양자역학자인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 같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신비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적 법칙이 어떤 가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점을 철저

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 에이지(New Age) 류에서 “현대 물리학이 드디어 신비주의와 만나고 있다.”는 소리를 하면 코웃음을 치는 거죠. 물리학자들은 신비가들이 경험했다는 신비의 세계는 결코 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첨단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신비주의는 뉴 에이지 사람들의 신비주의와 다릅니다. 절대로 가 닿을 수 없는 본질이 신비라는 거죠. 우리의 의식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양자역학이 말하는 신비입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관찰자를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로 관찰 대상을 말할 수 없다.”는 양자역학에서 논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더 철저한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츨프 카프라(Fritjof Capra) 등의 사람들이 동양사상과 현대 물리학을 접목시켰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만, 실제 그런 법칙을 발견해 낸 과학자들은 물리학이나 수학적 언어로써 물(物) 자체 또는 진리나 본질 자체에 가 닿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우리가 무명(無明) 속에 있음을 아는 것이죠. 무명은 무조건 어리석고 어둡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승기신론을 보면 무명업식(無明業識)을 기반으로 모든 게 펼쳐져 나오잖아요. 무명업을 기반으로 나와 대상이 분열되고,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를 기반으로 만상(萬象)이 드러나는 거니까, 의식이 발전하는 가장 기초 단계인 토대가 되는 무명업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무명업을 다른 말로 여래장(如來藏)이라고도 하잖아요. 진리를 저장하는 겁니다.

무명(無明)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상적으로 드러난 진여의 모습을 기반으로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적인 진여를 진리라고 믿는 우리 의식의 토대가 바로 무명입니다. 진여를 닮은 그림자를 하나의 현상으로 여기지 않고 진여로 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의식의 태생 자체가 무명이라는 말입니다. ‘진여법에 의해 무명이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 무명을 기반으로 모든 앎과 경험이 생겨나죠.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무명입니다. 그 자체는 무명이지만 하나하나 법칙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무명에 의해서 진여를 훈습한다.’고 표현합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엔트로피(entropy)의 법칙, 열역학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을 찾아내잖아요. 이런 법칙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 자체가 무명이지만, 어쨌든 그 법칙들은 진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칙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무명이 진리를 훈습’하는 겁니다. 무명이 진리를 닮아서 점차 맑아지는 거죠.

그리고 무명(無明)은 진여를 물들여서 어리석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진여인데, 나와 대상을 나누고, 경계 속에 폭 빠져 있는 어리석은 상태가 무명에 물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여가 무명에 물드는 것일까요? 진여법, 다시 말해 진여라는 현상이 무명에 물드는 것이지, 진여 자체는 무명에 물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여 자체에는 절대로 가 닿을 수 없지만, 진여법 또는 대상이나 현상을 통해 진여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진여법 때문에 무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무명이 있어 진여를 훈습한다고 합니다. (所謂以依眞如法故, 有於無明. 以有無明染法因故, 則熏習眞如.) 무명이 어떻게 진여를 닮아 갈 수 있을까요? 진여는 물들어서 무명이 되고, 무명은 물들을 닦아내서 진여가 되어가는 관계에 대해 생멸문에서 말합니다. 생멸문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세계 즉 현상의 세계이고, 진여문은 그 무엇으로도 가 닿을 수 없는 절대적인 진여의 세계입니다. 무명이 있어서 진여를 훈습한다는 것은, 생멸문의 진여를 물들인다는 말이지 절대의 세계인 진여문의 진여를 물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깨달았어.”라고 여긴다면 그건 생멸문의 진여인 겁니다. 물들 수도 있고, 물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생멸문의 진여예요. 현상 속의 깨달음, 각성인거죠.

근본 무명이 진리를 좇아서 지속적인 앎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근본무명(根本無明)의 훈습입니다. 살피고 관찰해서 물질과 우주의 원리나 의식의 구조와 원리 등을 찾아내고 앎을 형성해서 “아~ 알았어!” 하는 일들은 무명한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여의 세계에는 결코 이런 앎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깨어있기 등을 통해서 마음의 구조와 감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습도 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 등은 모두 무명망심이 진여를 훈습하는 겁니다. 진여법을 따라가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 현상인 겁니다. 감정에 끌려 다니고,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느낌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해 주면 안 됩니다. 해 줘야 소용도 없고

요. 아직 그것들이 자기를 혼드는 상태인데, “이렇게 살펴보고, 원리를 발견하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현상이야.”라고 결론내면 앞으로 나갈 동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습하기에 망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以熏習故, 則有妄心.) 온갖 감정과 생각과 느낌들에 시달리다가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나는 좋아졌어. 나는 변했어. 나는 뭔가를 알아챘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망심(妄心)입니다. ‘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뭔가 일어났어. 알아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습이란 그렇지 않다가 그렇게 되는 변화를 말하죠. 원래는 아무 향기도 없던 옷에 꽃향기를 잔뜩 뿌렸더니 옷에서 꽃향기가 나는 그런 게 혼습입니다. 향기 없는 옷과 같은 진여 자체는 혼습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워지면 지복이 넘쳐서 꽃향기가 나는 걸 자기라고 여기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런 기분 좋음은 계속 유지되질 않아요. 현상은 항상 나타났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황홀경이 계속 되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간혹 한 번씩 황홀경을 느낀다면 괜찮겠지만, 매일 느끼면 중독되어 평상의 마음이 저 밑바닥의 최악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평상의 아무 느낌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혼습되면 맑아지고 자유로움이 느껴지는데 그건 한 순간이죠. 모든 느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변할 때 잠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유로움과 평화스러움이 느껴졌을 때 “아! 난 이제 변했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망심(妄心)입니다. 무명의 혼습으로 인해서 업(業)의 알음알이가 생겨나는 게 업식심(業識心)입니다. “이제 뭔가를 알게 됐어.”라고 여기는 마음이 고정되어 업(業)으로 장착되면, 누군가가 “넌 틀렸어”라고 말할 때 화가 버쩍 올라요. 나는 알고 있는데 틀렸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마음이 망심(妄心)이라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맨 처음이 진여, 그 다음이 무명, 그리고 혼습에 의한 망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망심이 도리어 무명을 혼습하게 됩니다. “나는 알았어.”하는 망심의 순간에 다시 나와 대상의 분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명을 혼습하여 다시 물드는 시작이고, 공부의 마지막에 쉽게 걸려드는 함정이에요. 나와 대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다시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인겁니다. 그래서 깨우쳤다고 여기는 그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뭔가 알았다고 여겨지면 그걸 자꾸 말하고 싶어요. 잘 모르고 헤매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다시 함정에 빠지는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알아챈 사람에게 “너는 10년 동안 저 뒤에 가서 방아나 쪼어라.”이랬는데, 요새는 다 나와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깨달았다는 느낌, 가르쳐 주고 싶은 느낌들에 끌려 다니는 거죠. 모든 느낌은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타인을 위해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마음도 경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느낌일 뿐입니다. 대승기신론 소(疏)에서는 망심으로 도리어 무명을 혼습하여 그 요달하지 못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어리석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식(轉識)과 현식(現識)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진여와 무명이 순환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279쪽)

無明熏習義有二種. 云何爲二. 무명혼습의유이종. 운하위이.

무명혼습의 뜻에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一者根本熏習. 以能成就業識義故. 二者所起見愛熏習. 以能成就分別事識義故.
일자근본혼습. 이능성취업식의고. 이자소기견애혼습. 이능성취분별사식의고.

무명혼습의 첫째는 근본혼습(根本熏習)이니 업식(業識)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소기견애혼습(所起見愛熏習)이니 분별사식(分別事識)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명혼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근본혼습(根本熏習)으로 업식(業識)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무명이 혼습을 통해서 앎을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대상들 사이의 경계를 그려

내는 현식(現識)과 나와 대상으로 나누는 전식(轉識), 가장 기초가 되는 업식(業識) 같은 식(識)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무명이 혼습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무명이란, 그림자로 이루어진 우리의 앎과 감각을 진실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림자 세계입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이데아론을 ‘동굴의 비유’로 설명했죠. 동굴안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동굴 밖의 세계를 아는 방법은, 동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에 의해 동굴벽에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통해서라는 거죠. 지금 물리학자들도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물리적인 법칙이나 마음의 법칙이 모두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물리학 법칙이 진리자체가 아닌 그림자 세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림자 너머의 세계가 있다. 그것이 신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파악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그림자와 같은 감각적 사실이에요. 마우스를 만지면 매끄럽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매끄럽다는 게 따로 있습니까? 우리 감각에만 매끄럽다고 느껴지는 것일 뿐 바이러스한테는 매끄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본질적인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매끄러움이 있을까요? 매끄럽다는 건 상대적인 것이고, 관계에 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림자와 같은 감각적인 사실을 통해서 ‘앎’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진짜 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근본업식입니다. 업식을 성취할 수는 있는데 그건 진짜 식(識)입니까? 가짜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앎과 모름을 넘어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식(識)은 앎이에요. 경계육상(境界六相)을 만들어 내는 식(識)들은 그림자와 같은 감각적인 사실을 통해서 형성된 앎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면서 “당신에게는 실존하는 물리적인 세계가 없으니 아프지도 않겠네.” 할 수도 있습니다. 맞으면 누구나 당연히 아프죠. 다만, 통증과 괴로움 등은 본질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프다가 아프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내 본질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내 본질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건 본질이 아니죠.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때라도 변화가 없고 늘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니깐요. 그것이 여여(如如)이고 여래(如來)인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뀌었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착각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명혼습의 첫 번째인 근본혼습(根本熏習)이 업식(業識)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무명의 혼습을 통해서 절대적 그림자를 토대로 한 앎과 법칙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진여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무명(無明)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여라는 현상이 없다면, 그 진여를 찾고 발견해서 ‘알았다’고 여기는 그런 무명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진여라는 현상이 있으니 어떤 법칙이 찾아진다는 말이에요. 이 우주에는 어떤 법칙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 헤매다 보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양자역학의 법칙, 중력장 이론 등을 찾아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힘에 대해 이전에는 전기력, 자기력 등의 많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현대물리학에서는 전기력과 자기력이 합해서 전자기력, 양성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강력,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존재하는 약력,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발견하려고 애썼지만 이루지 못했던 통일장 이론처럼, 나눠져 있다고 여겨지는 이 우주가 실제로는 나눠지 않았음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물리학자들은 했습니다. 전기와 자기는 다르다는 지식을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무명의 앎이죠.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전기와 자기에 대해 따로 배웠지만 지금은 전자기력으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은 정신과 물질이 다르다는 앎이 있지만, 나중에 정신과 물질이 다르지 않다는 앎이 생기면 지금의 앎은 무명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겠죠. 빛이 파동이라는 가정 아래 실험을 하면 파동으로 발견되고, 빛이 입자라는 가정 아래 실험하면 입자로 발견됩니다. 즉, 실험 도구에 따라서 빛이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빛은 입자다.” 또는 “빛은 파동이다.”라는 앎이 있었는데 지금은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는 앎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경계이고 분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명의 식(識)이라는 것은 근본무명을 기반으로 한 경계입니다. 에딩턴은 “자연 과학적 방법으로 외부 세계가 발견되어도 그것은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 단지 상징으로 이루어진 그림자 세계일뿐이다. 즉 그것은 과학 너머에 있는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학 너머에 있는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정되고 물질화된 세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에 접하는 것만 한계지어 놓은 절대적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물리학은 11차원에 대해 말하는데, 이 11차원도 마음이 지어 놓은 경계죠. 11차원으로 경계 짓고 거기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발견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근본무명은 자꾸 식(識)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의식으로 검증하면 모두

검증이 됩니다. 검증되기 때문에 법칙으로 와 닿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림자의 법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각이 발견해 내는 세계는 왜 무명일까요? 우리의 감각은 느낌을 만들고, 그 느낌을 기반으로 세계를 파악하는데,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개 사이의 관계입니다. 두 개로 분열되어 있지 않으면 느낌이란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적 세계는 분열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분열을 기반으로 파악된 모든 것은 얼기설기한 절대적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분별없음을 분별해 놓은 것은, 의식이 경계 지어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파악된 모든 것은 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자가 절대 자체는 아니어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그려 낼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하거나 가정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진리를 표현해냅니다. 예를 들면 이 안경집을 자로 재면 약 10c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안경집은 10cm 길이’라고 의식합니다. 우리는 이걸 ‘안다’고 여기죠. 그런데 그 10cm라는 것은 특정한 길이를 1cm라고 표현하는 약속에 의해 규정된 10cm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없다면 이것을 10cm로 표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수학적 진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절대세계를 표현한 것이겠어요? 단순한 비율일 뿐인 것을 우리는 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 비율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1cm라는 기준을 통해 10cm라는 값을 형성하는 것처럼, 정해진 기준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리의 일단을 표현해 내는 것이 무명을 일으키는 기본입니다. 무명의 세계가 매우 정교하고, 그 무명으로 발견한 원리가 아무리 정교한 물리적 법칙이라 해도 결국은 상대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뉴턴은 절대공간을 말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상대적인 공간과 시간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상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망심(妄心)을 통해 진리를 혼습한다는 것이 바로 근본혼습입니다. 우리의 망심은 망가진 마음, 거짓된 마음, 상대적인 마음인데 이것이 발견해낸 진리가 절대 진리겠어요? 진리의 표현일 뿐이죠. 그래서 무명이 하는 혼습은 아무리 진리를 본받고 진리에 물들어 간다고 해도 결국 불각(不覺)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명혼습은 근본불각(根本不覺)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무명혼습(無明熏習)의 두 번째 의미는 소기견애혼습(所起見愛熏習)입니다. 견애(見愛)를 일으키는 혼습이죠. 견(見)에는 아견(我見)과 사견(邪見)이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견해, 내가 옳다는 견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아견(我見)입니다. 사견(邪見)은 삿된 견해, 옳바르지 않은 견해, 어리석은 견해죠. 애(愛)는 탐욕과 진에(瞋忿)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견(見)이란 기준이고, 애(愛)는 끌림과 밀침입니다. 마음의 기준에 맞는 것에는 끌리고, 기준에 맞지 않거나 견해를 망가뜨리는 것에는 저항하죠. 그런 기준들이 우리한테 쌓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면 나도 그것이 옳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과학자들을 믿는데 그들이 지구는 둥글다고 말하니깐 그것이 내게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혼습된 거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TV에서 지구의 둥근 모습을 보여주니 그냥 믿는 거죠. 둥글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 없이 둥글다는 값이 생겨나게 되어서, 누군가가 “지구는 둥글지 않고 네모나.”라고 말한다면 “그건 옛날 지식이야. 넌 틀렸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견애(見愛)의 혼습을 통해서 이것과 저것을 분별해 내는 일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성취분별사식(成就分別事識)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 때문에 밀치고 끌리는 게 생겨나서 밀치는 건 싫다는 분별을 하게 되고, 끌리는 건 좋다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는 분별 속에 빠지는 것은 말초적이고 표면적인 불각(不覺)입니다. 근본불각에 대비하여 지말불각(枝末不覺)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명혼습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근본무명이 진리의 표현을 파악하는 법칙을 발견하고 값을 이루는 것이 무명이 진리를 혼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혼습이지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진리를 혼습하는 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것(새끼줄)은 뱀이야.”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나는 안다.”는 마지막 착각으로 다시 무명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무명에서 일어난 의식인 견애(見愛)가 혼습을 통해서 모든 사건과 값을 분별해 냅니다. 분별을 나쁘다, 좋다 판단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분별은 아주 정교하게 해내고, 분별 속에 빠지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오늘은 무명혼습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무명이 진리를 혼습하여 닳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청년 백일학교와 홀로스 공동체 학교

1. Happy Learner Camp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간 미내사 함양 연수원에서 진행된 해피러너캠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캠프는 총 5개의 과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통찰력 게임으로 현재 자신의 느낌을 느껴보는 과정을 통해 나의 진짜 감정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며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의 시작을 통찰력 게임으로 열었는데요, 학생들은 캠프를 참여 하면서 품고 왔던 목적과 주제를 통찰력 게임으로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자연에 말 걸기로 캠프 아침부터 오전 내내 자연과 만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와 만나고 따스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그것의 느낌을 깊게 느끼고 주의를 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섬세한 경청과 소통의 감각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행복한 진로 여행으로 한 분야의 최고가 되는 방법,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재미있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직접 자신의 관심사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과정은 행복 디자인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행동, 경험을 디자인 하는 연습을 통해서 삶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탁월한 영역을 개척하고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달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것을 실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정은 에너지 밸런스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연습을 통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과 힘들어도 괜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과 마음의 느낌을 느끼고 대화하면서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고 몸과 마음에 쌓이고 뭉친 에너지를 풀어주고 균형 잡



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캠프 4일차에는 함양 8경인 화림동 계곡 농월정에서 물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학생들은 물놀이, 물수제비, 다슬기 잡기 등의 활동을 통해 여름을 깊게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피러너캠프는 미내사에서 처음 진행된 청소년 캠프로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캠프 과정에서 경험한 배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현재 100일간의 후속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후속 모임을 진행하며 캠프 이후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어떤 친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한 학생은 그 관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함으로써 그 학생과의 관계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새로운 변화와 환경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져서 캠프 기간 동안 ‘적응’이 주제였던 한 학생은 캠프 이후에 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 가면서 바쁘지만 즐겁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충실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앞으로의 삶과 학업의 과정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나가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2. 깨어있기 기초 후기_두레박님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함양 연수원에서 깨어있기 기초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두레박님의 통찰을 나눕니다.

마하리시의 '참자아 탐구'를 하던 중 나의 생각에 집중하는데 '몸이 나라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발견하고 '어떻게'를 묻던 중 미내사클럽에서 보내오는 메일을 그동안 스쳐지나 가다가 제대로 보게 되었다. '깨어있기' 프로그램의 후기를 읽으면서 '가보자',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나의 일정은 상관하지 않고 무작정 신청하여 참석하였다.

첫째 날, 화분을 가지고 하는 연습 중 앞이 멈춤을 보고 그 느낌을 나에게 가져와 '침묵'을 느끼는 순간, 허~ 이럴 수가.' 고요 속에, 침묵 속에 있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월인 선생님의 인도 한 마디에 침묵/고요가 항상 함께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수많은 노력을 한 내가 바보같이 보였다.

둘째 날, 감지 연습을 하던 중, 성지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 가다 보니 '몸이 나라는 느낌', '에고'가 툭 떨어져 나갔다. 이 느낌을 지속해보라는 말씀에 밖으로 나와 가만히 살펴보니 '이 몸이 나인가? 흐흐. 이 몸이 나라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던 끈이 떨어져 내 몸을 보니 나오는 물음 '어라, 이것이 나인가?' 셋째 날, 주의연습 설명 중 대상에게 보내는 '나'가 있는데, '나'에 주의를 보내면 '나'가 대상이 된다는 말씀에 해보니 '나'와 그냥 '봄(보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첫 걸음마를 떤었으니, 생활 속에서 '주의'와 '감지' 연습을 체득되도록 꾸준히 연습하여야겠다. 그런데 연습하여야겠다는 그 높은 누구지?



3. 홀로스 공동체 일상 이야기

1) 남해 바다로 윈드서핑을!

뜨거운 햇빛이 내리 쬐었던 8월 중순, 윈드서핑을 위해 홀로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남해 사천 바다로 떠났습니다. 바다 위에서 흐르는 물은 시간대 별로 방향과 세기가 달라지는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세게 쳤다가 은은하게 밀려오며 이리저리 모양이 변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윈드서핑을 타면서 파도의 흐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의 방향, 모양, 세기가 우리 마음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강한 파도가 쳐도 그 파도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2) 함양 연수원의 마스코트, 까미가 새끼를 낳았어요!

함양 연수원의 꽃! 까미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3개월 전, 묶여있던 줄이 풀려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까미가 덜컥 임신을 했었는데요, 해피러너캠프가 끝나고 다음 날인 8월 12일에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 총 4마리를 건강하게 순산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된 초보엄마 까미는 새끼들 젖 주고, 씻겨주느라 정신이 없어보입니다^^ 새끼들이 커가면 커 갈수록 태풍이의 모습을 점차 닮아가는 것으로 보아 아빠는 태풍이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ㅎㅎ 앞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